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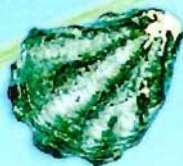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2001

충현의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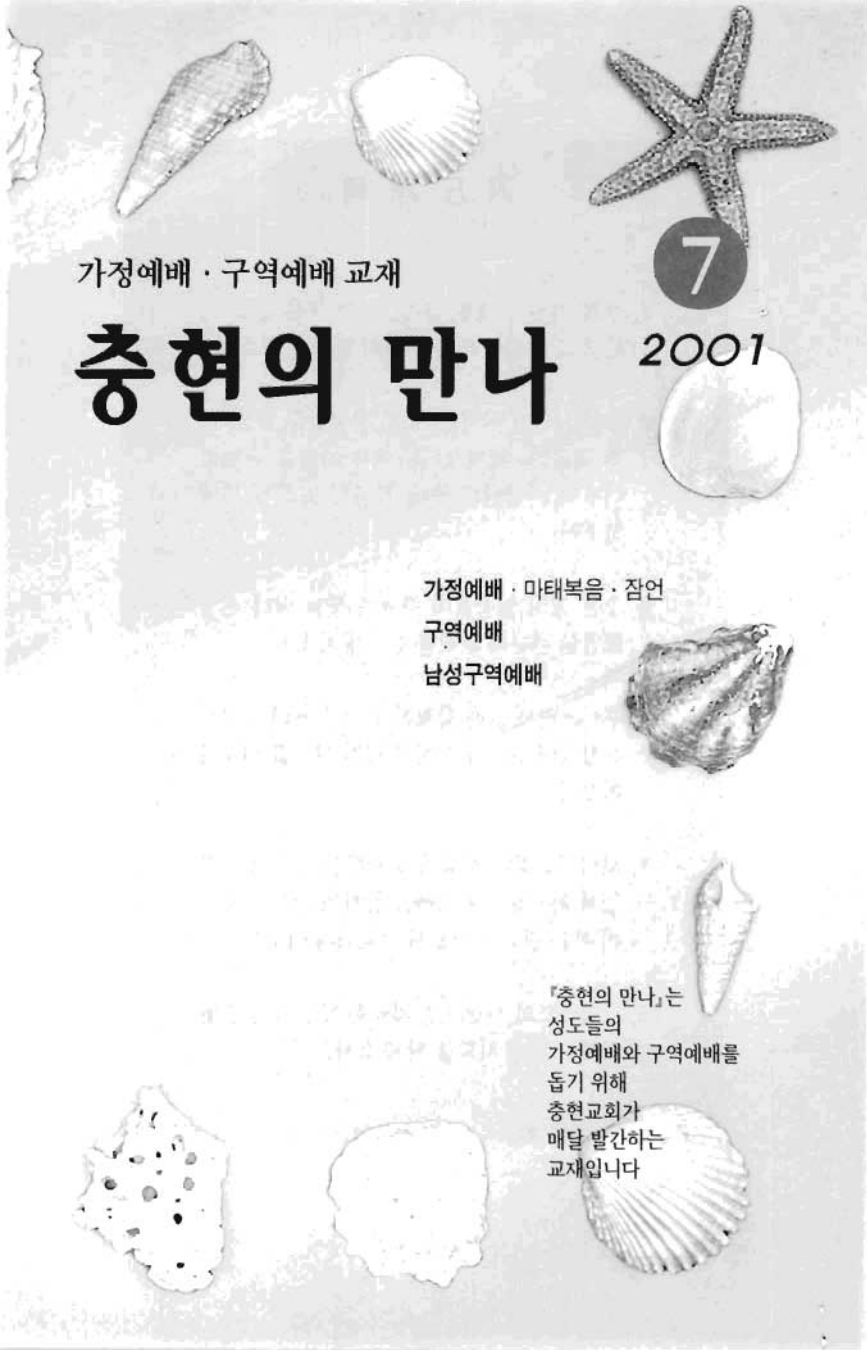


가정예배 · 마태복음 · 잠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마태복음 · 잠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7월의 열기



어느 덧 여름입니다.
햇빛에 달구어진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
숨쉬기조차 힘들게 하는 자동차 매연.
그리고 죄로 물든 인간이 내뿜는 죄악들!
분명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명의 도시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지만,
세상 어느 곳에도 참된 안식이 없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참된 안식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7월의 열기!
그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께서 베푸시는
시원한 그늘
참된 기쁨의 잔 마실 수 있도록.
이 천년 전 베들레헴
야곱의 우물가와 디베랴 바닷가
그리고 영원한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
그곳으로 모두 함께 달려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여름 한 낮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하실
그 분을 뵈옵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001년 7월

위임목사 김 성 관

마태복음 서론

마태복음서는 이 복음서의 원래 독자들, 즉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느냐는 문제에 관해 고심하는 교회에게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마태의 책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세리였음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을 언급할 때 “세리 마태”라고 부르며(10:3), 다른 세 복음서보다도 돈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 세겔 세금”(17:24), “한 세겔 동전”(17:27), “달란트”(18:24)와 같은 표현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마태복음만의 돈에 관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반세기 후, 주후 80-85년경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사역 중에서 가르침을 크게 강조하고 있고, 그 가르치신 내용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마태는 이 복음서를 역사가의 입장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건들의 기록이 연대기적으로 쓰여 있지 않고, 그 사건의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마태가 역사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되어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주장함으로써 천국(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일관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가르침, 비유, 사건들이 모두 이 “천국”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는 혼돈에 빠진 정신 세계에서, 크리스천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실한 특성을 갖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충현의 성도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음으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복음서의 가르침과 지침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가 전한 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요내용

첫째,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4:11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정체
4:12-16:20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
16:21-28:20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둘째, 마태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다섯 개의 긴 가르침으로 모았으며, 그 사이 사이에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엮어 두었습니다.

1:1-4:25	사건들
5:1-7:29	첫 번째 가르침 : 산상 수훈
8:1-9:38	사건들
10:1-42	두 번째 가르침 : 선교자 지침
11:1-12:50	사건들
13:1-58	세 번째 가르침 : 비유
14:1-17:27	사건들
18:1-35	네 번째 가르침 : 교회의 공동 생활
19:1-23:39	사건들
24:1-25:46	다섯 번째 가르침 : 미래의 심판
26:1-28:20	사건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난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조상들이 남겨준 삶의 지혜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통과 유전(遺傳)이 신앙의 본모습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희석(稀釋)시키기도 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8절) 사람들로 하여금 참 휴식과 평안을 누리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형식과 법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본래의 뜻을 잘 이해하여(12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문자화된 하나님이 아닌 살아 계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전통과 유전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무시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살아 계신 하나님보다 교회의 전통과 형식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신앙의 삶을 형식화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어느 누구라도 건드릴 수 없다고 마음 중심에 꼭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통과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의 모습(삼상16:6; 요4:23-24)을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요나의 기적을 설명하시며(39-40절),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당신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임과 동시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가족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기억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씨뿌리는 비유’ (3-23절, 37-38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전파되지만, 그 복음을 듣고 결실하는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관심이 없어서 곧 잊어버리는 사람, 잠깐은 기뻐하고 좋아하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포기하는 사람, 또는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깨어있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마음 밭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좋은 땅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24-43절)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습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음을 말하며, 특히 교회의 모습 속에는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치 말고 오직 참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의 모습이 처음에는 미미하고 약해 보이나 결국은 큰 결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섬을 얻을 수 있습니다(31-33절). ‘보화와 진주의 비유’ (44-46절)에서는 천국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가치있는 것임과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물 비유’에서는(47-50절) 천국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 ① 이 땅이 아닌 천국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세례 요한의 사명은 천국을 선포하는 것(마3:2)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마3:3; 요1:29)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다가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만큼 우리에게 주님은 소중한 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1:21)고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시는 분이시며(13-21절), 물위를 걸으시며 바람과 바다도 능히 다스리시는 분(2-33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감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여 주셨지만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주님보다는 나의 경험과 재능 그리고 재물이, 또 혈연과 지연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염려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마6:27).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히12:2)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1-20절)과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21-39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도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하나님보다는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더 치중하게 되었고, 결국 본래의 의도가 다 흐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9절)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었으나,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또 의식적인 것들로 변하여 우리를 속박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겉과 형식이 아닙니다.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욕심이 있는데 겉모양만 아닌 것처럼 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속에 변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행위와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앙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하여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병이 낫고,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자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 속 고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실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자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세와 각오가 필요한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몹시도 힘들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중 왜 이 시점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에 이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각한 사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침체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중 가까운 제자들 셋을 헬몬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자신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으로 끝맺게 될 여정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일은 이러한 주님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는 제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것은 장차 최종적으로 도래하실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분과 함께 있는 것은 그들이 최후의 날을 고대하고 있는 자들로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구름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타고 오실 영광의 구름을 예표합니다. 구름 가운데 들려온 소리는 종말에 관한 이상들에서 종종 언급됩니다(계21:6). 과거의 두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죽은 자들'을, 현재의 세 제자들은 '살아남아 있는 자'를 상기시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제자들에게 베푸신 확증은 지금 그 아들이 목표 삼아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이미 그 분의 사역에서 나타났고, 그 분의 부활로써 증거되었고, 장차 재림하실 때 남김없이 드러날 그 나라에서 그 분이 나타낼 영광에 관한 계시입니다. 당신은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어린양의 잔치를 기대하십시오.

어린양의 잔치는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막9:10). 제자들은 그 나라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방금 목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말하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마지막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엘리야가 먼저 와서 흠어진 가족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막7:6). 예수님께서도 그 가르침을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임으로 대우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분이 오셨음에도 몰라본 것입니다. 17절에서의 예수님의 깊은 탄식은 단지 그 소년의 아버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겨사씨만큼의 믿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소년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소년의 병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러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에 관한 역설은, 가장 연약한 자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작은 사람입니까? 믿음만큼은 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세상에는 작은 자이나 믿음에는 큰 자에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관한 마가의 기사를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돌이켜 이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어린 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아이와 관련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언제나 작은 자들의 곤궁함을 아시고, 그들이 멸시받고 부당하게 취급될 때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5절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권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모든 정황은 어떤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은밀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는 그가 공중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 정죄를 받거나 공회에서 축출되거나 아니면 사면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 말기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으로서, 최후의 만찬이 있던 다락방에서 하신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라멕과 관련있습니다. 라멕은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칠십 칠 배'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창4:24). 이제 그 인간의 끝없는 복수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러 무한한 용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기도 제목 / 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용서한다는 주의 말씀을 실행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말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제공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장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중 된 자' 들은 주님의 부름에 순응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반면에 '먼저 된 자' 들은 주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이 보기에 무법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부정하였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심정에서 거기에 충분히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구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을 통해 곧, 고난의 '잔' 을 마심과, 죽음을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도자의 임무는 자기 희생의 봉사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같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인류의 새로운 출애굽, 즉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구출하는 수단이 되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소경들은 시력을 회복하고 난 후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곳으로 '주님을 좇아' 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인생의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하나님이 미리 공언하신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요, 주님 자신이 의도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개선의 환영을 상징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 곧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공생애 사역 중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곧 다윗의 후손이지만 물론 다윗과 같은 전사가 아닌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라, 네 왕이 임하느니라’ (눅9:9).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사62:11)라고 말하며 가리키는 그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성전을 청결케함은 심판이 되는 동시에 또한 그 당시 성전에 기초한 교제보다 더 나은 교제를 바라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성전 뜰에서 병자를 고치신 일은 이 사건의 메시아적인 의의를 강조합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이때에 하신 일을 보고 분을 내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나무는 매우 일찍부터 잎이 빠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익은 열매는 6월이 되어서야 나옵니다. 그러나 잎과 함께 둥그스런 것들이 나오는 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마 이것을 보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없자, 열매를 비유로 들어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열려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삶에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구원도 마한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인생들을 초청하시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본문에 주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 잘 설명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것을 갖춘 초청입니다(4절). 곧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초청은 신실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비유 가운데, 주인(하나님)은 끊임없이 종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초청은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대로(9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대로 모두 데려왔습니다(10절). 넷째, 하나님의 초청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5절 이하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빠뜨리고 대적하였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청은 계속됩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온 우리를 복음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복음의 종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복음의 종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이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요1:9-11)', 대표적인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화 있을찢저' 라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길과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닫고(13절),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습만 꾸미고 속사람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기(25-28절) 때문입니다. 그들을 인하여 주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37, 38절).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거듭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거절할 때, 오직 심판이 있을 따름입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탄식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3절)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 신앙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① 먼저 미혹케 하는 일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24절).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미혹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복음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②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13절)고 합니다. 공의가 굽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달혀지고 결국 사랑이 식어집니다. 둘째, 종말의 때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6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42절). 주의 날을 기다리고 예비해야 합니다(44절).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40, 41 절). 이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말과 영광의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세상을 떠나 은둔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깨어 종말을 준비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13절). 왜냐하면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13절). 비유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부들을 다 졸며 잤습니다(5절).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왔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기에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둘째,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서 회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는 시간, 물질, 재능, 은사 ... 등 소유 전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점진해 보길 원합니다. 셋째, 주님께 하듯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입니다. '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자들을 주님은 자신이라고 적용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0).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돌아보고 섬겨야 할 분은 있습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과 섬김을 다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3절). 그들은 예수님을 कै 계로 잡아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4절). 이들은 주님의 사역에 언제나 핍박과 훼방으로 대적하였습니다. 둘째, 가롯 유다입니다(14절).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증거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은 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15절). 그의 관심은 언제나 재물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렀도다' (딤후6:10). 셋째, 베드로입니다. 그는 큰소리쳤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33, 35절). 하지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넷째, 마리아입니다(요11:3). 그녀는 향유한 옥합을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 값은 300데나리온 곧 노동자 1년치 월급 전부에 해당됩니다. 주님의 장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헌신한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참으로 값지고 주님 앞에 기념될 것입니다(13절). 오늘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헌신의 삶을 감당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칙흑 같은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드디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 당시의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1-2절).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후회를 했지만 되돌려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더러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3-10절)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종결됩니다. 총독과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합세하여 십자가 형틀을 세웁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11-26절). 군병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심지어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27-44절). 더구나 예수님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성소 휘장이 찢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45-5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게 되고,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57-66절).

예수님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망이나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두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침묵하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이 만약 27장의 어두움의 희생양으로 끝이 난다면 인류의 희망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28장은 인류에게 놀라운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라’ 예수님은 애매하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망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혜롭게 깨어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1-10절). 한편, 예수님의 부활은 어두움의 자식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파수꾼과 대제사장, 장로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은밀하게 거짓 소문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어두움의 일을 은폐하려고 합니다(11-15).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면서 모든 족속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어두움을 깨치고 몰려오는 태양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까? 비천한 여인들은 이 기운을 발견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껍박하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을 향해 믿음의 갑옷을 입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밝힐 태양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전권대사로서 어두움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잠언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리석은 자나 젊은 자, 지혜 있는 자들과 명철한 자들이 잠언을 통해 경건한 삶을 찾아갈 것입니다(1-6절). 악한 자들은 죄 없는 자들을 삼키려고 가만히 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멸망하는 길로 다니게 됩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7-19절).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때는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법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뒤늦게 부지런을 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데 어리석음의 열매로 우리의 배를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20-33절).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는 악한 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초대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고집을 부리면서 지혜자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걸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참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참 지혜자를 따라가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 시키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은 악한 길, 어리석은 길을 찾아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선한 길,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가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은을 구하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찾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보배를 두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소유할 욕심을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지혜야말로 은이나 보배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혜자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정직한 길을 저버리고, 어두운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소시의 짝을 버리게 됩니다. 필경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정직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음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성도의 길을 깨달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망하는 원인을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지혜가 없을 때 가지고 있는 지식마저도 삶의 현장에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를 움직여 가십시오. 생명의 길이 당신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음녀의 말에 유혹되지 않고 성도의 길을 지키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아프리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악을 떠나는 것' 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악한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선을 베풀 힘이 있는 자가 '갓다가 내일 다시 오면 그때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고, 까닭 없이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징계의 채찍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가지 길을 분별해야 합니다. '포악한 자, 패역한 자, 악인의 집, 거만한 자' 가 걸어가는 길이 있고, '정직한 자, 의인의 집,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 가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는 여호와의 저주로 나타날 수 있고, 여호와의 복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관념적이고 이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도하시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을 윤곽하게 만듭니다.

여호와를 인정할 때 길을 지도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날을 일컬어 지식 정보화의 세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평생을 수 집해도 못 다 알 정보가 조간신문에 실려오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은 세상 곳곳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참 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장 사꾼이 귀중한 상품을 사라고 권하듯 간곡히 권하고 있습니다. 지혜야말로 사람을 보호해 주고 지켜주며 영화롭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지혜 자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판가름 해 줍니다.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혼계를 들어야 합니다.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귀를 입을에서 버리며 사귀어 입을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의에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루를 분주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말씀을 떠나 분주히 살았다면 어리석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속에 참 지혜가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하는 줄 알아서 순간 순간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말씀을 따라 순간 순간 살게 하소서. ② 권요셉 최은아 단기선교사 (아프리카)가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 학교 사역을 잘 감당 하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요즘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0%을 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생육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정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자 하셨는데, 이 거룩한 제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성적 방종이 큰 이유일 것입니다.

본문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음녀의 입술을 떨어지는 꿀과 미끄러운 기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꿀이 달고 매혹적인 맛을 가졌듯이 음녀가 관능적으로 유혹하는 말이 매우 달콤하며 일시적인 쾌락을 자극하고, 기름이 미끄럽듯이 죄악을 교묘히 합리화시켜 판단력을 무디게하여 범행하게 만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음행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음행의 발걸음은 사지(死地)로 내려가는 걸음이고,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음행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음녀에게서 멀리하고 그 집 문앞에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에서 실패하면 존영과 재물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쇠패할 때에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음 얻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제도 속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아내의 품을 죽히 여기고 항상 연모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가정 가정이 말씀 안에 바로 서도록. ② 이명하 김서영 정현주 단기선교사(방글라데시)가 1년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놀고 먹는 것이 복인가? 혹자는 물려받은 재물이 있거나, 많은 돈을 벌어서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이것이 복있는 삶이요, 일해야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좀더 손을 모으고 눕자 하면서 좀처럼 일을 시작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겨우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벼운 충동에 그치고 중도에 그만두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며 자랑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게으름뱅이를 훈계하기 위해서 개미를 비유 대상으로 삼았는데, 개미는 동서 고금을 통해 부지런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감시자 없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며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개미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물이지만 성실히 일하는 개미를 등장시킴으로써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허물을 역설적으로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이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다스려 가고 자아를 실현해 가며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던 예수님처럼 시간을 아껴 일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부지런한 삶을 삽시다.

기도 제목 / ① 노동의 즐거움을 알게 하소서. ② 추진회, 이소영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에게는 천부적으로 식욕과 성욕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음란의 물결이 넘쳐 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음란한 것에 미혹되는 것을 참으로 어리석은 짓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어리석은 소년이 등장합니다(7-9절). 소년은 충동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어두움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며 으스스한 골목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범행의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데 전혀 경계심이 없습니다. 이때 음란한 계집이 어리석은 소년을 맞이합니다. 이 계집은 거리와 광장 모퉁이를 돌아다니는 간교하고 부지런한 음녀입니다. 기생은 화려한 옷을 입고 어리석은 소년에게 입 맞추며 환한 미소와 달콤한 말로 미혹합니다. 최고급 침실과 보장된 안전한 시간이 있다고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소년이 그 음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발걸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22-23절)’

우리는 음란에 미혹된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눈동자를 지키듯 명령을 지켜 음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음녀의 길은 사망이요 말씀의 길은 생명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유혹을 이기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② 협력선교사들(아프리카의 강기엽,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무엇보다도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속에 진주보다 나은 명철과 근신과 도락과 참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첫째로,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과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으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인간사의 모든 것을 보면서 지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으로써, 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는 창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가지셨고, 땅과 바다와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났으며,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났고,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창조사역에 동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지혜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생활 속에서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혜가 가져다주는 이득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혜야말로 예수님의 기본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삶 속에서 말씀 따라 지혜롭게 살면서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초대를 받게 됩니다. 결혼식, 돌잔치 등 기쁘고 즐거운 일에 초대를 받는가 하면 장례식 등 슬픈 일에도 초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의 초대(1-6절), 지혜의 초청에 응한 결과(7-12절), 그리고 어리석은 일예의 초대(13-18절) 등 초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의 끊임없는 초대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책망과 가르침을 순종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의 초대에 응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3-18절)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성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세상의 부름에 응하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과 예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시어 예수님의 초대에만 응답하시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지혜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참 지혜자이신 주님만 만나게 하소서. ② 추은희 단기선교사(아프리카)가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깊이 사랑하며 그들의 언어를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모든 삶을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인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 참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1-12절).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시고 악한 자에게는 결국 멸망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29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는, 지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안전과 평안이 보장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골2:3). 따라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에 얽매이거나 동요되지 말고 오직 성도의 유일한 반석이시요 지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산성이 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참 지체자이신 예수님의 품에 거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에서는 인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현장들과 관련하여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지혜의 영역을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혜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전반부에서 지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1-8절), 후반부에서는 주로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지혜를 다루면서 지혜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9-31절). 이처럼 하나님은 지혜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내심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도록 하셨기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동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자가 되시며, 지혜의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면전에서 지혜의 삶, 거룩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영역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참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에서는 지혜가 삶의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면, 본장에서 솔로몬은, 의인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반면에 악인은 결국 멸망당하고 만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앞 장에서 지혜는 주로 외부적인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함을 가르쳤다면, 본장에서는 인간의 내면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의 태도를 다름에 있어서 새롭게 도입시키는 개념은 '토지'라는 개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누리며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악인과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기业的 상속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천국의 풍성한 유업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상속을 허락하심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인의 유업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의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오직 의인의 회중에 서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의인과 악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최종적인 심판과 축복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지나치게 인간의 자유 선택과 결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외시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솔로몬은 인간의 죄에 관한 문제와 자유 의지에 대하여 인간의 책임의 문제를 아울러 지적함으로써 자유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표출된다는 사실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 받는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악인은 멸망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지혜자에게는 영생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영생과 멸망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의인의 길에 굳게 서는 지혜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솔로몬은 의인과 악인의 특성을 대조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들의 특성을 법정의 영역(5절, 25절), 하나님과의 관계성(2절, 26절, 27절),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21절, 31절)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솔로몬은 지혜를 어리석음과, 의로움을 사악함과 대조시킴으로써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솔로몬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지혜와 마음과의 관계를 밝히면서 인간의 내면적 존재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간의 존재를 규정짓는 요소로 마음을 드러냄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이나 기쁨의 중심에는 인간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사망의 고통이 찾아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의 선물을 주셨음을 깨달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언제나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소서. ② 7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8월에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주의 만찬

찬송 / 282장(유월절 때가 이르매)

본문 / 마 26:26-29

들어가면서(서론)

오늘의 본문은 '주의 만찬' 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기 전 날 밤, 그 시간을 통해 그의 제자들이 특별히 기념해야 할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신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예견하시고 인내하실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분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거룩한 식사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강조하셨던 모든 것, 즉 주께서 설명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되풀이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그가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의 만찬' 입니다. 이 의미는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진리를 보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맡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실천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 ① 26절 - 예수께서 행하시고 강조하신 것
- ② 27절 - 예수께서 행하시고 강조하신 것
- ③ 28절 - 예수께서 강조하신 성찬의 의미
- ④ 29절 - 재림과 연관된 성찬에 대한 약속

2. 다음 주일 설교(주의 만찬)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6:35).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이 매일같이 먹고 마셔야 할 영혼의 양식(일용할 양식)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매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요 4:34)

②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 이르게 할 수 있는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성육신). 이것은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요 3:16)

③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식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씻어내기 위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심을 나타내는 기념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식탁엔 어떠한 자들이 나아올 수 있을까요?

나오면서(결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말씀과 성례'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충현교회가 격월마다 행하는 성찬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돌아오는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성찬의 식탁에서 영생의 양식을 먹여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정결함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새롭게 솟아나는 시간이 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전할 것을 결심하는 헌신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성찬식을 인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제목:

본문:

제 2 과

스바 여왕의 방문

찬송 / 205장(예수 앞에 나오면)

본문 / 왕상 10:1-13

들어가면서(서론)

아라비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사바(아라비아의 옛 왕국)의 통치자였던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낙타의 등을 타고 1,930 Km나 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들었고,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1절). 그녀는 많은 보배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가 여호와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아주 먼 거리와 오랜 시간,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듣고 보기 위해 참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께서 그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42). 하나님은 그녀에게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예루살렘에 올 것을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히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에 반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솔로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절 - 스바 여왕의 방문 동기

② 2절~3절 - 솔로몬의 지혜

③ 4절~9절 - 솔로몬에 대한 스바 여왕의 평가

④ 10절 - 스바 여왕의 방문으로 인한 결과

2. 다음 주일 설교('스바 여왕의 방문')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스바 여왕은 온유한 심령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토록 멀고 위험한 길을 주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위대한 신령한 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왕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솔로몬보다 위대한 지혜의 왕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사 9:6, 요 8:42, 요 10:15, 롬 11:33)

②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질문을 하였지만, 솔로몬은 막힘이 없었습니다(3절).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신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 어떤 지혜를 베풀어주실 수 있을까요?(요 14:6, 고전 2:6,7, 고전 12:8, 엡 1:17, 딤후 3:15, 약 3:17)

③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 머나먼 길을 여행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약 1:5). 그렇다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오게 될까요?(막 12:24, 요 16:13, 골 1:9)

나가면서(결론)

성경에서 지혜란 세상의 지식이나 처세술과 같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고전 2:6).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정확하게 짓는 자에게 적용시키고(출 31:1-11, 35:10),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나타낼 때 사용하며(마 7:24), 성령과 함께 사용하여서(행 6:3-10) 영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 뜻에 철저하게 따르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지혜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셨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된 '지혜의 왕' 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스바 여왕처럼 하늘에 속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묵상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그러진 자아의 모습과,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자아의 본성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세를 부끄럽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道)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목 :

본문 :

제 3 과

여호와를 찾을 때

찬송 / 366장(어지러운 세상 중에)

본문 / 호 10:9-12

들어가면서(서론)

농부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운 들판을 바라볼 때, 무엇에 대해 생각할까요? 그들은 풍성하고 알찬 곡식의 수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와 유사한 양식으로 자신들의 아름다운 영혼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서 잡초로 만연한 황폐한 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열매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 열매도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부르십니다(1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축복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9절~10절 - 범죄의 결과

② 11절 - 심판의 이유

③ 12절 - 회개의 촉구

④ 13절 - 심판의 이유

⑤ 14절~15절 - 범죄의 결과

2. 다음 주일 설교(‘여호와를 찾을 때’)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후에 범죄의 길에 들어서서 점차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브라임)을 향하여 호세아가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늦은 것 같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미’ 늦었지만 ‘아직’ 늦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육체의 욕심에 의한 죄악의 삶이라면 이것은 범죄한 것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삶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중이 아니라 지금 각성하는 ‘즉각적인 반응’

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갈라디아 5:19~21' 과 '5:22~24' 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②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경작될까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경작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정결하여지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대상 22:19). 회개를 통하여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행 3:19).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사 55:6,7).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사 1:18, 요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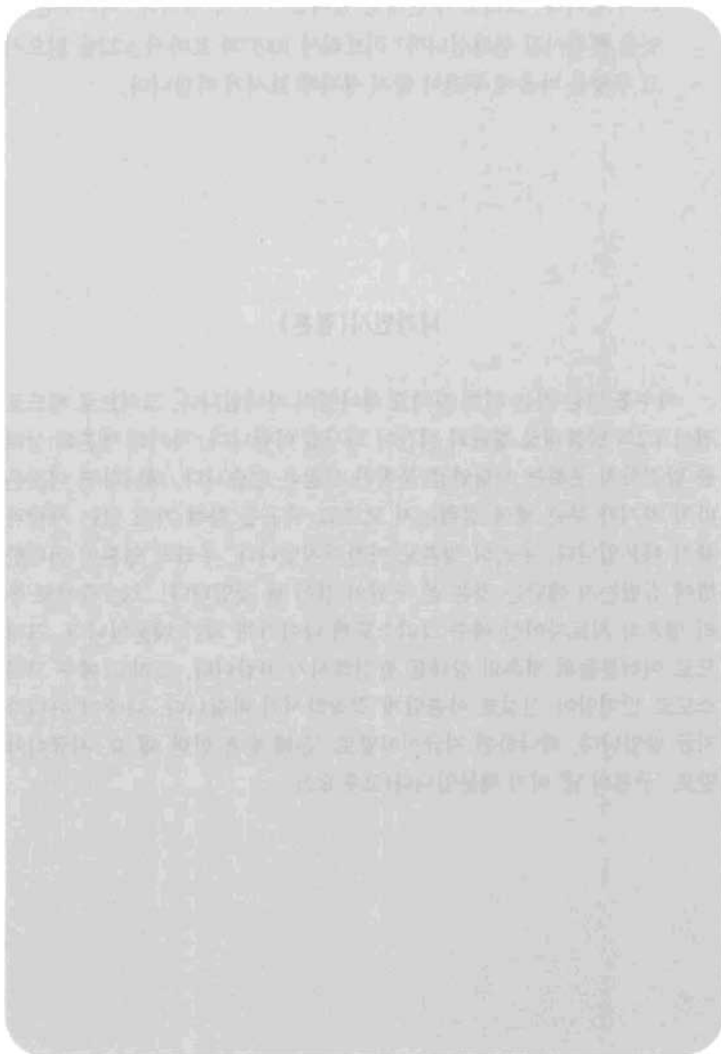
-
- ③ 농부는 자갈과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한 경작된 밭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뿌린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시길 원하십니까? 히브리서 10:37과 로마서 3:22을 읽으시고 무엇을 마음에 뿌려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면서(결론)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4:2의 말씀대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깨닫는 것은 곧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즉시로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아름답게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 이기 때문입니다(고후 6:2).

제목 :

본문 :



제 4 과

그의 능력

찬송 / 93장(예수는 나의 힘이요)

본문 / 마 19:26

들어가면서

율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온 한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물어왔습니다. 그 청년은 율법의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질문은 바늘구멍으로 낙타를 통과시키겠다는 청년의 각오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라도 낙타를 바늘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사람의 노력이나 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부자들, 즉 돈의 노예가 된 이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의 힘을 더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더욱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즉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믿음 없는 부자 청년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6절 : 청년의 질문은 무엇인가?

② 17절 :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③ 18-20절 : 청년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④ 21절 :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셨나?

⑤ 22절 : 청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

⑥ 23-24절 : 예수님의 최종적인 판결은 무엇인가?

⑦ 25절 : 구원에 대한 제자들의 의문은 무엇인가?

⑧ 26절 :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2. 본문말씀 가운데 26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① 하나님은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신적인 권능은 ()하며 ()할 수 없습니다(마 9:26).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과 ()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

습니다.

② 하나님은 ()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요 3:16).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하고 ()한 것을 의미합니다(히 7:25).

③ 하나님은 우리를 ()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유 1:24을 보면 우리를 ()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그 영광 앞에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전 10:12에는 “그러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당부입니다.

④ 하나님은 우리를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행 20:32에서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께 부탁하노니 그 ()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 즉 성화(sanctification)는 오직 ()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롬 14:4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⑤ 하나님은 우리가 ()과 ()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 2:18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기가 ()을 받아 ()을 당하셨은즉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후 9:8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또 한 엡 3:20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

갖 ()이나 ()에 더 () 능히 하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⑦ 하나님은 ()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21에는 "()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가면서(결론)

하나님에 대해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 여전히 필요 없는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슬픔이나 고난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수께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중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하나님은 현재 내가 겪고있는 고난과 역경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②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단지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가?

③ 과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까 의심되는가?

제목 :

본문 :

(5월) 10월 11일

제 5 과

작은 분노와 큰 분노

찬송 / 363장(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본문 / 사 54:7-9

들어가면서(서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범죄를 인하여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불같은 시련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인하여 받게 되는 진노에 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사야 53장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흐름이 이사야 53장과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주님이 겪으시는 커다란 형벌과 슬픔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이사야 53장 3절을 읽으십시오. 3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다 읽으셨으면 이번에는 4절을 읽으십시오. 4절에서는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마치 심각한 죄인이 된 듯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주님에 대한 인간들의 오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

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읽으십시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는 예수의 처절한 고통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커다란 진노를 받아내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래의 사항에 따라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4절~6절 - 남편 되시는 “네 하나님의 말씀”

② 7절~8절 - 긍휼히 여기시는 “네 구속자 여호와와의 말”

③ 9절~10절 -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와의 말”

-
2. 다음 주일 설교(‘작은 분노와 커다란 분노’)를 읽으시고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작은 진노를 경험하며, 커다란 진노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 8절에서 말하는 ‘넘치는 진노’라는 것은 초기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작은’ 진노 또는 ‘적은’ 진노를 의미합니다. 이 작은 진노는 단지 ‘잠깐’ 또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범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작은 진노’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삼하 7:14, 욥 33:19, 시 39:11, 뱀전 1:6)

②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금방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멈추지 않을 영원한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7절을 보면, ‘잠시 버렸으나’라는 말과 ‘큰 공훈’이라는 반대적인 의미가 나오고, 8절에서도 ‘잠시 가리웠으나’라는 말과 ‘영원한 자비’라는 반대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비교해 볼 때, 작은 진노는 진실로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시’ 또는 ‘작은’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신 8:5, 잠 3:12, 잠 29:17, 고전 11:32, 딤후 2:25, 히 12:6~11, 계 3:19)

③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에는 큰 진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로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묘사된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그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의 형벌은 어떤 것일까요?(롬 6:21, 히 6:8, 살후 1:8,9, 유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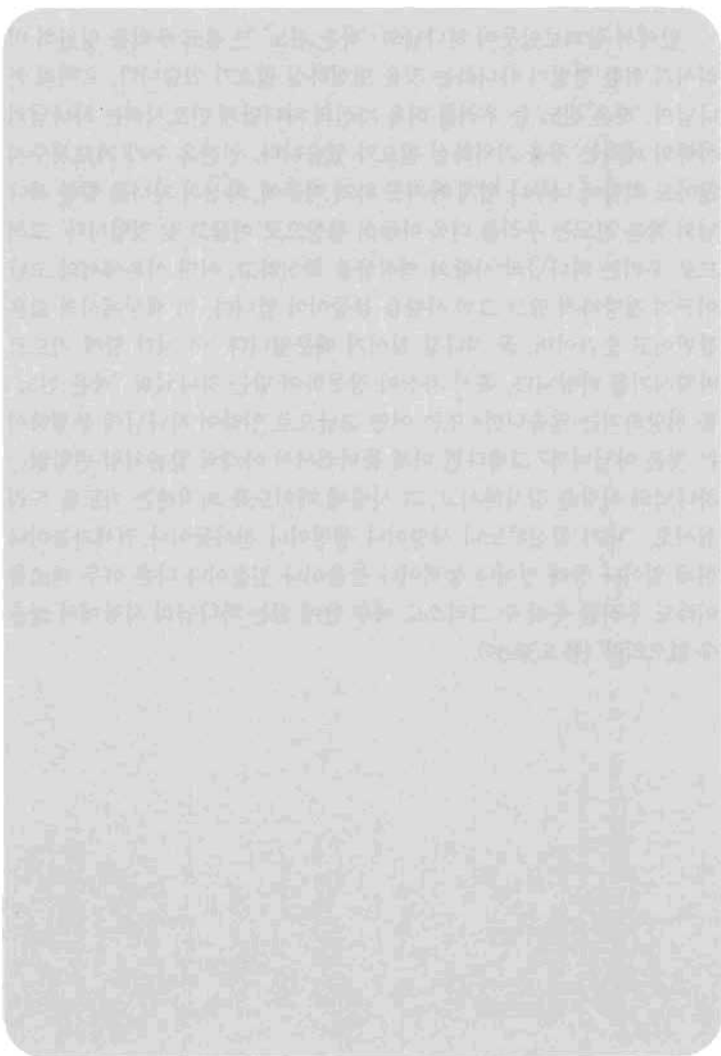
④ 그러나 노아 때와 같은 영원한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뀌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커다란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시 103:12).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노아의 언약보다 더 큰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때때로 의심하고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민 23:19, 삼상 15:29, 약 1:17)

나오면서(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작은 진노'는 결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작은 진노'는 우리를 더욱 자신의 자녀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악에 너무나 쉽게 빠지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작은 진노는 우리를 더욱 아들의 형상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함을 확신하고, 어떤 이유에서의 고난이든지 절망하지 말고 그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순간이며,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하여 받는 하나님의 '작은 진노'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돌이키셔서 아래의 말씀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그 사랑에 매이도록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5 과

추 수

찬 송 / 308장
읽을 말씀 / 눅 10:1-2
외울 말씀 / 요 12:24

영혼의 추수를 향한 열망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 마 9:35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 마 9:36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 눅 10:1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 눅 10: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1.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눈에 보인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 9:36)

2. 예수님의 눈에는 항상 추수할 것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민망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추수할 영혼,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시는지요?

3. 예수님께서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 보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제목에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는 기도가 있는지요? 만일 없다면 왜 그러한 기도제목이 없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영혼의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 요 4:35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 요 4:36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 요 4: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 요 4:38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 요 12: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4. 우리가 영적인 추수(죽어 있는 영혼을 구하는 일)를 기대하기 전에 이미 되어진 일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요 4:36-38)

5.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요 12: 24)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다음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계 3: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6.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힐 가지와 닫힌 영혼의 문을 두드릴 손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까? 당신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영혼의 추수를 위한 동역

7. 영혼의 추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귀한 추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막 16: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 5:11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 5: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

막 16: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행 2: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행 2: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행 2: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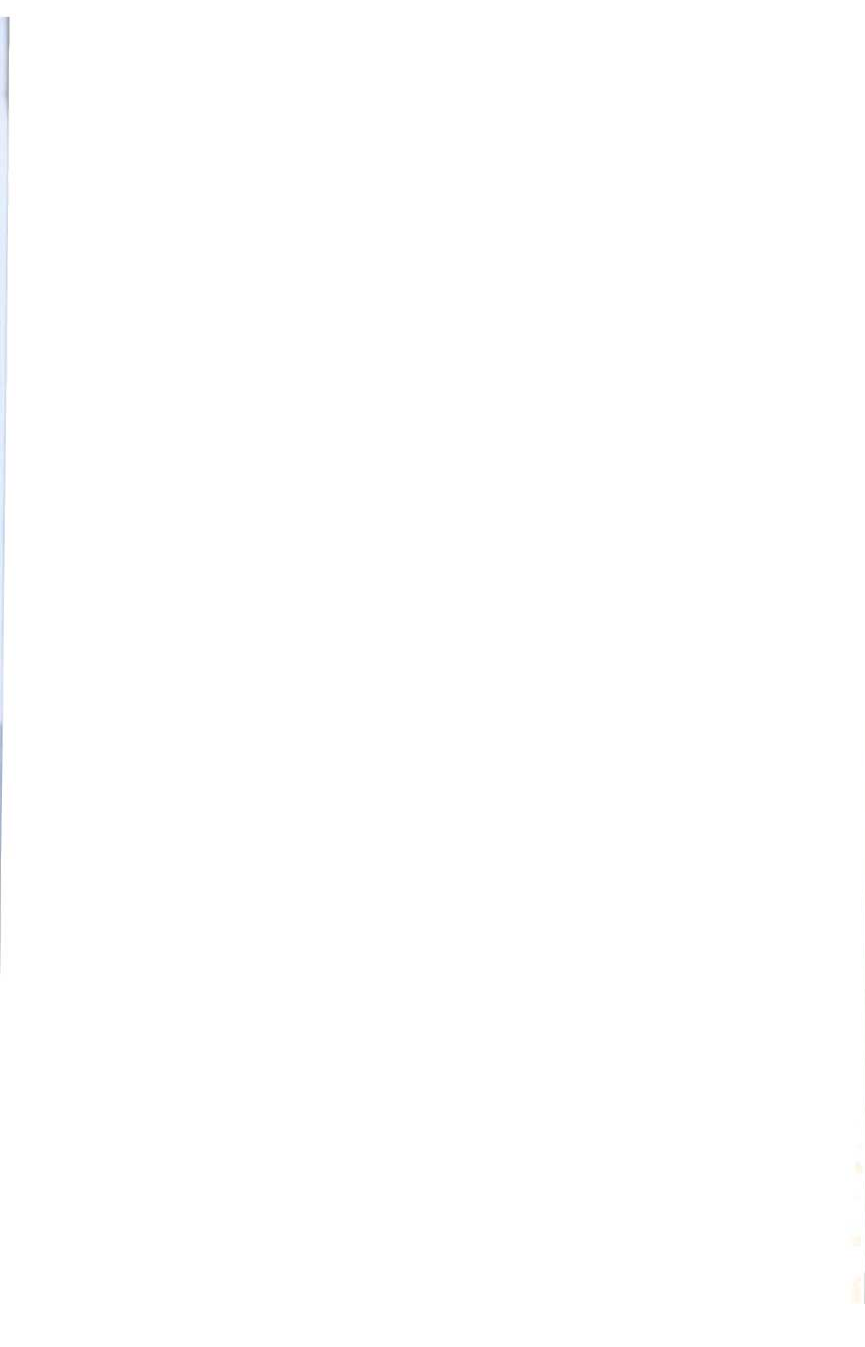
행 10:43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행 10:44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행 10: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
- 행 8: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
니
- 행 8: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
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 행 8:38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
이 세례를 주고
- 행 8:39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8.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한 것과 각자의 기도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찬 송 다 같이
- 성경봉독 사회자
- 메시지 낭독
- 기 도 다 같이
-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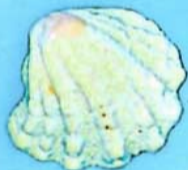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1년 7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이유헌(1-5일), 안창덕(6-10일), 방준영(11-15일) 목사
 김병태(16-20일), 서광진(21-25일), 정현민(26-31일)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